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 1:8-9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1.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분명할 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비록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치 않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1:8)

이 당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에 바친 음식은 왕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열흘동안 채식과 물만 마시겠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한 모습은 다니엘서 6장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왕에게 신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 30일간,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명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는 등의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현실을 도피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우상숭배를 비롯해 온갖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며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악을 저지르는 로마 정부에 순복함과 같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빛났던 이유는, 바로 그의 정직성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단 6:3-4)

다니엘을 대적했던 이들이 그를 고소할 조건을 찾았지만 그의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성될 뿐 아니라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정직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원천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 평소에 하던대로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즉, 자신의 지금 이 기도가 곧 죽음을 부를 수도 있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결국 그에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던 분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은 재능을 뛰어 넘습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알아 맞추지 못하면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 동역자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중에 다니엘에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위기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진짜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10 에 보면, '그가 감사했다' 고 말합니다.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의 상황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

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뜻만 정하고 말았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정한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결단과 다짐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 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결단했던 행동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즉, 다니엘의 '결단' 이 '실천'에 이를 수 있었던 원인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우리는 '뜻을 정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정한 뜻'을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하며 뜻을 정한 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니엘의 모습에 비추어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던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해 봅시다.